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방향성 고찰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 Focused on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

오유라¹⁾, 이승연¹⁾, 이은지¹⁾, 박슬기¹⁾, 황사라¹⁾, 손지훈^{2,*)}

Y.R. Oh MSW, S.Y. Lee MSW, E.J. Lee MSW, S.K. Park MSW, S.R. Hwang MSW, J.H. Sohn MD, Ph.D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가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집단 FGI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8년 9월 7명의 정신건강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각 회기별로 2시간씩 총 3회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 본 연구결과와 주거서비스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크게 주거서비스의 문제점, 역할, 방향성, 체계구축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거서비스의 문제점에는 서비스의 분절성,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있었고, 주거서비스 역할은 일상생활기술의 습관화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거서비스의 방향성으로는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주거서비스 역할 구분의 필요성, 지원주택 유형 추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주거서비스의 분절성,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지원주택이라는 선택지 추가,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이 제시된 바 있었다. 즉, 주거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관점에서의 효과성을 위해 주거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와 주거서비스 간의 역할 구분이 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 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 **주요용어** : 병렬형 주거서비스, 서비스의 분절성,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Abstract

• **Objective** : The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housing services for the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in order for the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o properly serve and prove option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arties..

• **Methods** : The use of FGI on a group of mental health professions was considered suitable a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us, in September 2018, 7 mental health-related academics and field experts were recruited. There were 3 sessions held in total, each of which lasted for 2 hours.

• **Results** : As a result, we were abl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housing services according to problem, role, direction and the system building of the housing services. In detail, the problems with housing contained service segmentation, provider-centered service provisions, and the sub-category of the role of housing services consisted of the habituation of daily life skill. Also, as for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service, sub-categories were set by providing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parties, the necessity of dividing the roles of the housing services,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types of supportive housing. Moreove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ystem has been suggested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housing services.

• **Conclusion** : The school-based post-suicide intervention program, "Comforting with Hope,"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lf-reported stress, depression, and the suicidal ide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chool-based suicide,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E-mail (eliarde@naver.com)

and the study suggests that "Comforting with Hope" provides not only 'recovery from the trauma' but also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growth'.

• **Keyword** : Parallel housing service, Service segmentation, Supportive housing, System building of housing services

I. 서론

1950년대 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Community care'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보호 관련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호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입 방향이 시설의 입원치료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7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라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주거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개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주거'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변은경&윤숙자, 2010; 이병화 외, 2017). 대표적인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재호, 2008; 강해규, 2008; 양난주, 2010). 이외에도, 주거서비스를 선택하려면 보다 많은 선택지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형태가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배은미&박희정, 2017; 이용표 외, 2014;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2014; 홍선미, 2017).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은 최근 서울시 조례 통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7.06.29.)',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04.0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약칭:주거약자법, 2018.06.29.)'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주거 관련 욕구에 주목하였고, 관련 조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개별 욕구가 잘 반영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은 그 체계를 보다 잘 구축하였다.

이에 영국은 정신장애인에게 주거와 함께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Supporting People(SP)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Community Care라는 명칭 하에 정신장애인 중 독립적인 생활 가능자에게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 단위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홍선미, 2017; 이병화 외, 2017). 물론, 모든 국가들이 지원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지원주택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복지에 대한 민원과 욕구를 일원화된 창구에서 접수받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 및 협력하고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개별 욕구 및 독립생활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된 창구가 없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절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현주소를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집단의 FGI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영국의 주거서비스

영국의 주거서비스는 '거주배치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무(Duty of local authorities to provide accommodation)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거서비스를 가진 자의 욕구가 인정되면 영국의 경우 기존에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의료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SSD)를 통하여 제공된다. NHS와 SSD가 각기 다른 경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sion)라는 공통적인 경로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는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SSD)와의 협력 하에 정신보건 트러스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담당자들이 NHS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업무공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는 영국의 주거서비스는 아래 <표1>과 같은 지역사회 주거 유형을 가지고 있다. <표1>을 보면 영국의 주거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됨을 볼 수 있으며, 욕구에 맞는 주거서비스 단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다(홍선미, 2017). 따라서 영국은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정신장애인의 현재 상태 및 필요한 서비스, 욕구 등을 개별적으로 사정한 후 각 수준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1단계는 독립된 거주지와 함께 외부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원주택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